

# ‘항일·반독재·통일운동 거목’...월파 서민호 선생의 삶

통 큰 정치인 서민호 평전  
김삼웅 | 지식산업사 | 2만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싸웠던 이들에 대한 조명은 문단에서 끊임없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마음껏 누리던 자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언제든지 침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대한민국 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과거 민주 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월파 서민호 선생은 이 같은 혼란의 정국 속 그의 삶을 통해 안목과 경세관을 되새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인물이다.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나 1974년 서거하기까지 일생을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거목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책이 발간됐다.

이번 평전은 서 선생의 일대기를 차례대로 소개한다. 유년기 시절부터 타계하기까지 이어지는 그의 서사가 펼쳐지며 근현대사 최전선에서 투쟁한 한 인물의 인생관을 직시한다.

서 선생은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과 해방 후 반독재 투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소신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치며 해방을 위해 헌신했고 이후 초대 광주시장과 7대 전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 3·1운동에 참가해 옥살이를 했고 당대 최고의 학부를 거친 지식인으로서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에 항거해 조선어학회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수감됐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도 그는 해방을 향한 소신을 거두지 않았다.

미군정 아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을 역임한 그는 1950년 제2대 국회에 진출해 내무부과위원장으로 1951년 국민방위군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 이승만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다. 결국 정적으로 몰린 그는 서대위 격살 사건으로 8년의 투옥 끝에 4월 혁명으로 풀려났다.

서 선생은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몇 차례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제목 아래 대정부 정책질의를 하며 평소 믿었던 이념과 정책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전남 지역 최초로 국회(민의원) 부의장에 오른 데 이어 유엔(UN)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시기, 국회의원직을 사

퇴하면서까지 굴욕적인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했다. 또한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유엔을 통한 남북 총선거 실시와 통일 자주 정부수립을 촉구했다.

서 선생은 호남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재산 대부분을 교육사업에 기부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등을 비롯한 여러 한국 정치의 거목이 서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은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 거래의 통일을 위해 싸운 인물에 대한 경외심이자 인간상에 대한 공경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삼웅 작가는 ‘한국평전문학의 개척자’로 통한다. 청년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서 선생의 삶과 결을 함께 한 그는 한국근현대사의 역동성에 매료된다. 이는 항일 민중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출한 선구자 50여명을 선

별해 책으로 펴내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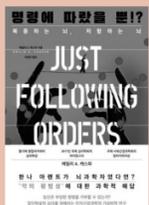
김 작가는 대한매일신보 주필, 독립기념관장, 제주 4·3 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한국필화사’, ‘조지훈 평전’, ‘백범 김구 평전’, ‘단재 신채호 평전’, ‘안중근 평전’ 등이 있다.

김 작가는 “월파 서민호 선생의 평전을 마무리할 시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잔치를 하지 않겠다는 한강 작가의 결연함이 감동적이었다”며 “이 땅에서도 전쟁을 부추기는 무리가 설치는 판국이라 한강 작가의 이 발언은 하늘에 계시는 월파 서민호 선생께도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국가 폭력 가담자들의 공동 변론을 과학으로 파헤치다

명령에 따랐을 뿐!?

에밀리 A. 캐스파 | 동아사이 | 2만원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최근 여러 국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이는 국가적 폭력 사태나 집단학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책임자들을 포함해 모든 가담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책임 회피성 진술이다.

‘복종하는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원론적 질문에서 시작해 명령에 따르는 인간에 대한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거쳐 해답을 거론하는 책이 출간됐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경고와 과학적 해답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책의 저자인 에밀리 A. 캐스파 박사는 심리학계와 과학계에 선세이션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집단학살과 국가적 폭력에 가담한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같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부당하고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되짚는다.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명령에 따르는 이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신경학적 과정을 파헤친다. 복종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연구들과 함께 방대한 인지신경과학 자료를 분석해 집단학살, 폭력 사태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집단학살이 발생했던 르완다, 캄보디아 등을 방문해 실제 학살의 가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실험 결과로 종합해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의 책임을 물었던 1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된 24인의 지도자 대다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모두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12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당시 지시체계 최하단에서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위를 수행한 사병들과 부사관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논쟁이 일었다.

강압적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인지 저자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개인의 신경과학적 데이터로 집단적 폭력 현상을 설명하는 책. 이 책을 정독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한 시기다.

박찬 기자

##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빛의 혁명’ 완수 위한 과제 다뤄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박구용 | 시월 | 1만8000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이에 맞춰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몰락까지 살펴보는 신간이 출간돼 화제다.

박구용 작가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번 신간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12·3 내란 사태, 탄핵 가결의 결정적 순간들을 철학적으로 포착하고 분석해 낸다.

철학이란 시대를 품고 있는 사건을 사상과 개념으로 포착해 해석하고 해명하며 비판하는 일이다.

박 작가는 윤석열의 자유가 부른 비극에 주목했다. 이를테면 ‘자유’를 논할 때는 단순히 ‘자유는 중요해’, ‘자유는 필요해’라는 논리를 넘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자유 논리를 지적하며 결국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파국으로 치달은 과정을 면밀하게 진단한다.

1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까지를 다룬다. 한나 이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중심으로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와 그 부역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본다. 한국사의 세 가지 혁명

적 사건을 통해 그의 내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석한다.

이어 2부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결정적 사건들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훼손된 법률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의 의미, 시스템에 매몰된 정치인들의 인지부조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3부는 탄핵 이후 필요한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다룬다.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숙제가 포함됐다. 혐오의 정치를 넘어 우정의 정치로 가기 위한 방법,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철학적 분석 등이 담겼다.

박찬 기자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  
린이 | 비즈니스북스 | 1만8500원

역사가 기억하는 인생 고수들의 대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기계발서가 출간됐다. 중국의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인 저자는 고전에서 말의 내공을 찾은 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에 대해 설파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유연하고, 원만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해야 할 말’을 하라고 주장한다. 역사 속 영웅들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의 운명도 바꿨다. 이들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상대’에 맞춰서 말의 전략을 바꿨다. 책에는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에피소드 50편이 수록돼 말의 내공을 기르는 구체적인 길로 안내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공대일 | 시대의창 | 1만8500원

현직 안경사가 안경과 콘택트렌즈, 눈에 관해 조언하는 책이 출간됐다. 좋은 안경을 고르는 법부터 안경테의 구조, 안경렌즈의 기능,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사용·관리법까지 꼼꼼히 살핀 뒤 나아가 시력에 관한 근본적인 중요성도 언급된다. 저자는 노안을 피할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눈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되레 피해를 준다고 경고하며 올바른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노안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늦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눈-렌즈에 관심을 두는 일이다. 그 시작을 이 책과 함께하면 어떨까.



잃어버린 배뱅이굿  
최원식 | 숲 | 2만5000원  
연희사부터 근대문학사까지 살필 수 있는 연구서가 찾아온다. 이 책은 판소리의 기원이라 여겨던 잘못된 통설을 바로잡고 이은관(1917~2014) 명창 이후 급속히 소외된 배뱅이굿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편저로서 그간의 배뱅이굿 이분들 가운데서도 귀보라 할 수 있다. 우리 연희사와 소설사, 근대문학사 전반을 살피는 사료들이 차례대로 펼쳐진다. 특히 평안북도, 황해도 등지에서 채집된 자료들은 남북 문화교류의 매개체로서도 작동한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로 발전하던 북장단 판소리가 평안도, 황해도 등 이북 등지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배뱅이굿에 대한 후속 연구와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